

부처님 성도지 보드가야는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로부터 동쪽에 위치한다. 2월 15일 새벽 보드가야로 향하는 순례단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순례를 이어가고 있다.

날마다 수행…역경은 신심·원력으로 극복



노덕현 기자의

'상월결사, 붓다의 길을 걷다'

① 서울서 인도 체나리까지(순례 1주차)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매일 새벽 3시부터 행선 시작

정오까지 행선…저녁엔 108배

금강경 독송하며 자율 정진도

인도인들 환대, 석가족들 예경

환자 속출해도 "이것도 수행"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길을 나서면 우리는 안온한 안식처를 벗어나 툭 트인 세계로 나아간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길을 떠난다. 태어나 살고 죽는 모든 여정이 바로 길이다. 그 일부나마 부처님께서 걸었던 길을 함께 해보는 것은 다시 없을 경험이다.

2월 9일 조계사에서 고불법회를 한 뒤 인도로 향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가장 먼저 부처님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로 향했다.

사르나트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힌 곳이다. 부처님도 자신의 깨달음이 다른 이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깨달음을 전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를 떠올렸다. 선각자였던 알라라칼라마와 웃다카라마풋타는 이미 세상을 떠나 없었다. 부처님은 함께 수행했던 다섯 수행자를 떠올렸다. 부처님은 갠지스강을 건너 당시 다섯 비구가 수행하고 있던 사르나트에서 마침내 이들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한다.

사르나트에 도착해 숙소를 배정받은 순례단은 부처님이 다섯 수행자를 만난 자리 '차우칸디 스투파' (영불탑)을 참배하고 바로 이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 녹야원을 참배했다.

부처님을 이단시했던 꼰단냐, 왑빠, 밧디야, 마하나다, 앗사지의 다섯 수행자들은 부처님께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듣고 차례로 아라한과를 얻었다. 사르나트는 이들 다섯 비구가 탄생한 곳이며 우바새인 야사, 그리고 그의 아버지, 또 우바이인 그의 아내 등이 불교에 귀의해 사실상 불교 교단이 최초로 형성된 곳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순례단의 마음은 무거워 보였다. 사르나트 녹야원 현장은 유적만 남아있어 안타까움이 더했기 때문이다.

기원전 3세기 아쇼카 왕이 사르나트에 칙령을 새긴 석주는 흔적만이 남았으며, 부처님이 설법한 자리에 세워진 다메크 스투파 옆의 100m 높이에 달했다는 부처님 사리를 담은 스투파는 기단부 흔적만 남아 있었다. 한때 1500여 명의 승려들이 살고 있었던 기록을 뒤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불교의 과거를 보자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

순례단 모든 일정이 수행

2월 11일 입재법회를 마친 인도순례단은 2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순례에 들어갔다. 이들은 람라가르의 바라나시 수운선착장에서 4일차 행선을 시작했다.

순례기간 무더위와 새벽 추위, 위생이 열악한 화장실과 벌과 모기, 배앓이 등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 문제를 이겨내는 힘은 바로 '신심'이다. 순례단의 행선 시작은 공식적으로는 3시에 시작이지만, 새벽 1시 50분이면 사실상 시작된다. 도량석 전부터 미리 준비를 끝낸 스님들이 솔선수범하여 정리정돈을 돕는다. 도량석 이후 진행되는 순례고불은 2월 11일 점안한 인도에서 조성한 하얀 '큰 부처님'과 봉은사에서 조성한 목조 '작은 부처님'을 앞에 모시고 엄숙한 가운데 진행된다. "우리의 걸음은 신행 원력의 희망으로 삼아 가슴에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을길 골목길 흙길 물길 모든 생명이 평등한 깨달음의 길을 부처의 눈으로 함께 걷겠습니다"는 발원 하에 발걸음을 뗀다.

4시간 가량 행선이 이어진 뒤 순례단은 아침공양을 한다. 공양도 수행인만큼 "거룩한 삼보에 귀의하오며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 공양이 있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소서. 사바하"라는 공양기도문을 독송한다.

순례 일일회향 이후에 저녁 6시면 피곤함을 뒤로 하고 예불과 함께 108배를 진행한다. 2월 12일 저녁부터는 각자의 텐트에서 총도감 호산 스님의 집전 하에 〈금강경〉 독송도 시작했다.

예견된 고행길, 그래도 나아간다

순례 7일차부터 순례단의 피로감도 높아졌다. 낯선 인도에서 순례 중 몸이 불편한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도보거리가 135km에 이르자 무릎이 아프거나 족저근막염, 물집 등이 순례단원에게서 발생했다. 인도 환경에 적응과정에서 배앓이 등을 하는 이들도 종종 보였다.

하지만 순례단은 몸이 안좋으면 잠깐 차를 탔어도 이내 회복해서 행선에 참여했다. 낯선 환경으로 힘든 것은 한국에서의 3년의 순례보다 더했지만 이들이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힘찼다.

무릎이 불편해 행렬 후미에서 행선을 진행한 대변인 종호 스님은 "이 행렬에서 빠지면 안된다. 어떤 행렬인데"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우리가 부처님이 걸은 길을 함께 걷는 매 순간이 환희로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순례에 이어 인도순례에 동참한 3조 선지 스님도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진행된 자비순례 당시 아팠던 무릎의 상태가 악화됐지만 순례행렬에서 도반들과 함께 행선을 진행하고 있다. 선지 스님은 "이번 순례는 금생에서의 최고의 선택"이라며 "인도의 부처님 성지와 부처님께서 거쳐가신 길을 직접 한번 밟아보고, 따라 걷는 것이 수행자로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과 인도에서 스님들이 불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행선에는 순례단의 신심과 원력만이 순례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아니었다. 지원팀이 준비한 여러 가지 배려가 순례단을 기쁘게 하는 작은 행복이었다. 조금이나마 순례단을 돕기 위해 숙영지마다 짐이 옮겨지고 부족하나마 물탱크를 준비해 위생에 신경 썼다. 인도 경찰의 협조로 밤에는 경비 속에 안전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다. 김명숙 의료팀장을 비롯한 의료진의 보살핌도 이어졌다.

2월 13일 회주 자승 스님의 당부 이후에 조치가 더해지고 있다. 2월 15일 새벽 6시에 진행된 아침공양에는 추위에 떠는 순례단을 위해 따뜻한 국수가 공양 올려졌다. 지원팀이 인도에서 준비한 소면국수 한 그릇은 새벽녘 추위 속에서 행선을 진행한 순례단에 행복을 선사했다. 지친 와중에서도 순례단에서는 미소가 피어났다. 점심공양부터는 배앓이 등으로 속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쌀밥을 끓인 미음도 함께 제공됐다.

몸이 다소 불편한 가운데서도 고령에도 행선을 이어오고 있는 6조 비구니 정혜 스님은 "내가 아프다, 불편하다 소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기에 아프다고 소리 안하고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이들의 마음이 다 느껴진다"며 이어 "우리의 순례로 이 곳 인도에서도 전세계 사람들이 성지를 걷는 순례를 한다면 불교가 자연스럽게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석가족 찾아 예경…현지 관심 고조

한국불교 순례단은 인도인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호기심은 이내 신심으로 변화했다.

2월 13일 진행된 순례에서는 불자마을인 새드푸르 마을을 시작으로 벤, 띠여리, 말덴, 쉬브람푸르까지 인도 현지 불자들의 환영이 이어졌다. 아침공양 장소인 새드푸르 마을의 키산 초등학교(인터 칼리지)에 도착하니 학교 교장과 마을 이장부부, 경찰 관계자 등이 순례단을 기다렸다. 이들은 순례단에게 꽃목걸이를 건네고 축원 발원하며 꽃을 뿌렸다.

초등학교에 환영 플래카드를 건 키산 초교 교장 라제쉬 쿠마르 씨는 "한국 불자들이 부처님의 땅 인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특히 우리 학교가 공양 장소로 사용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불교기를 앞세우고 한국과 인도불자들이 함께 걷자, 그동안 호기심으로 보기만 했던 인도주민들이 환호와 축원을 보냈다. 불교사원 마핸드라보디 스님을 비롯해 불자들이 불교기를 들고 유피주에서 비하르주로 주 경계를 넘어서까지 순례단의 행선에 동참했다. 인도 힌두교에서 부처님은 9번째 신으로 모셔지지만 힌두교 신자 중 부처님 상을 보아도 공경을 표하는 이는 드물었다. 무엇보다 낯선 복장과 군경의 엄호 속에 진행되는 순례단을 호기심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 불자들이 순례 선두에서 함께 하자 인식이 바뀌었다.

마핸드라 보디 스님에 따르면 새드푸르 마을에는 2000여 주민 중 불교신자들이 400여 명에 달하는 인도 속의 불자마을이다. 스님은 새드푸르 마을이 속한 찬덜리 지역에도 매우 많은 수의 불자들이 살고 있음을 전했다. 부처님 제자들이 2500여년 만에 다시 부처님 나라인 인도를 방문 한 것에 대해 스님은 "한국불자들의 방문에 환희심을 느낀다.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르나트가 있는 우타르프라데쉬주와 보드가야가 있는 비하르주는 예로부터 불교 유적이 많은 곳이고, 인도 내에서는 불교신자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주 경계에는 다른 의미의 불자들이 있었다.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사라졌지만, 사회 구성을 이룬 계급제도 하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천민 계층들이 그들이다. 암베르카르 박사에 의해 불교신자로 개종한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왔다. 넉넉함이 없지만 그들이 준비한 꽃 공양도 순례단에 감동을 주었다.

순례 6일차인 2월 14일에는 반가운 가족이 순례단을 찾아왔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후예인 석가족들이다. 바부아에는 석가족 집성촌이 있고, 한국스님들이 바부아에서 묵는다는 소식을 들은 석가족들은 크라켓 경기장에 마련된 숙영지에 뒤늦게 찾아와 꽃공양을 올렸다. 석가족들은 한국불자들의 방문으로 이 지역의 불심이 크게 융성할 것이라며 기대와 함께 감사를 표했다.

바부아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석가족 람져스 쿠스와하 씨는 "이렇게 멀리 한국에서 순례단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석가족 마을을 한국불자들이 지나가서 너무나 기쁘다"며 "이 길을 따라 부처님도 예전에 지나갔다. 부처님 법이 인도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한국에서 그 법을 이어 다시 인도에 가져다 준 것 같아 감사하다. 불자들이 별로 없었지만, 많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방문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소수인 이들에게 한국불자들의 순례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는 것 같아 보였다. 인도 현지에서의 전법 포교는 순례단의 행선 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어제 400여 명의 불자들이 있다는 새드푸르부터 이 지역까지 많은 이들의 환대를 받았다. 오늘 방문한 석가족 분들이 지역 불심이 활성화 된다고 하니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견디기 힘든 어떤 것도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격려해주는 이들이 함께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 불교 중흥도 인도순례단과 같이 사부대중이 함께 한다면 머지않은 일일 것이다. 순례 1주차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다.



석가족 불자 대표가 회주 자승 스님에게 공경의 의미로 절을 하고 있다.



새드푸르 마을의 키산 초등학교에서 주민들이 꽃을 뿌리며 환영하고 있다.



순례 일일 회향 무렵, 순례단이 모시고 있는 작은 부처님은 꽃으로 장엄됐다.



매일 새벽 행선 전 하얀 큰 부처님께 발원문을 올리는 고불의식을 하고 있다.